

2013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

[프랑스, 벨기에]



서 대 문 구 의 회



목 차

I.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2. 연수 취지
3. 연수 기간 및 방문 국가
4. 연수단 구성

II. 연수 일정

III. 주요 방문기관

1. 에스파스
2. 파리시청
3. 호베흐의 집
4. 시데프
5. 파리시립도서관
6. 르 물랑 아 카페
7. 포럼데지마쥬
8. 알떼흐문디
9. 흐뒤
10. 시헤스코

IV. 연수 다이어리

I.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국가의 주요정책 운영실태 및 도시기반시설의 비교시찰을 통한 제도와 정책의 벤치마킹,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
- 창의적 인식 개선과 글로벌자세 함양은 물론 지역현안과 정책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양하여 주민을 위한 지역의 발전적 방안과 관련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함

2. 연수 취지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 운용실태 연구
- 지역 현실에 적합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구상
- 선진국의 모범 지방자치단체 방문 및 지방의원 간담회를 통한 지역의 지방자치 발전 모색
- 도시재생, 협동조합 등 관심분야 정책 운영실태 분석
- 여성지방의원의 국제적 감각과 마인드 향상

3. 연수 기간 및 방문 국가

- 연수 기간 : 2013. 2. 19 ~ 2. 27(7박 9일)
- 방문 국가 : 프랑스, 벨기에

4. 연수단 구성

- 구성 인원 : 16명(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회원)
- 서대문구의회 의원 : 1명(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II. 연수 일정

일자	지 역	시간	일 정
제1일 2/19 화	인천 출발	10:15	인천국제공항 개별 집합
	파리 도착	14:25	파리 샤를드골공항(CDG)
	파리	14:30~	입국, 동부캠핑장 이동, 연수 오리엔테이션
제2일 2/20 수	파리	10:00~ 14:00	바노시청 방문·간담회, 문화센터 견학·해설
		17:00~ 19:00	상원 견학·설명회
제3일 2/21 목	파리	10:00~ 12:30	에스파스(노숙자 관련 사회적기업) 방문·설명회
		14:00~ 16:00	파리시청 방문·설명회
		16:00~ 17:00	동등검사소 방문·설명회
		17:00~ 18:30	호베흐의 집(예술가들집) 방문
제4일 2/22 금	파리 근교	09:00~ 12:00	시데프 방문·간담회·국제연대
		15:00~ 17:00	파리시립도서관 방문·설명회
		19:00~ 21:00	보나베띠(지방로컬푸드협동조합)매장 방문·간담회
제5일 2/23 토	파리 근교	11:00~ 13:30	르 올랑 아 카페 방문·간담회
		14:00~ 15:30	포럼데지마쥬 아카이브도서관 견학·설명회
		16:30~ 17:30	알페흐문디(공정무역매장) 방문·설명회
제6일 2/24 일	벨기에	종일	흐뒤(책마을) 방문·설명회
제6일 2/25 월	파리	10:00~ 14:00	시헤스코(프랑스 공공급식 협동조합) 방문·설명회
		15:30~ 16:30	오베흐쉬흐와즈(고호가 살던 마을) 시청 방문·설명회
제7일 2/26 화	파리 출발	13:33	파리 샤를 드골공항 출발
제8일 2/27 수	인천 도착	18:20	인천국제공항 도착 해산

Ⅲ. 주요 방문기관

1. 에스파스(Espaces)

- 에스파스는 프랑스어로 공간, 장소를 뜻한다.
- 환경운동과 사회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된 단체로, 세느강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르노 자동차 공장 이전에 따른 실직자 등을 참여시켜 이들을 환경과수꾼으로 육성하고, 세느강을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 에스파스라는 한 마디로 강둑청소와 인도정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아니면 노숙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스파스를 통해서 사회적응도 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단체다.
- 에스파스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현장을 관리하는 일, 일자리 창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시에서의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안에서 녹색공간을 보호하는 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맞이하는 것인데, 주민들과 함께 에스파스의 활동 내용들을 공유하는 활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 파리시청

- 프랑스 시청은 루이9세가 1260년 파리 시민에게 시장을 선출하도록 요청한 것을 계기로 세워진 건물로, 프랑스 혁명 때는 바스타유 감옥을 습격한 시민에게 점령당했고, 1871년에는 대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 지금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복원돼 파리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부에는 화려한 연회장과 로댕의 조각 등이 있다.

3. 호베흐의 집(예술가들집)

- 14년 전 1999년에 이 건물이 비어있을 때, 스커트 운동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빈집을 점거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술가들이 이집을 뜯고 들어왔다. 이곳 호베흐의 집을 점거할 당시 유럽사회는 자본과 서구 근대화를 통한 공간의 지나친 사유화와 불평등 구조로 인해 촉발된 스쿼트 운동은 공간 점거운동, 빈집점거 운동, 주택점거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 점거당시, 이 건물은 한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몇 년 동안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을 점거한 예술가들은 퇴락하는 장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예술가들이 창조하고 거주하며 전시할 공

간을 조성하며 언론과, 미디어와의 소통에 잘 대응해 나가면서 대안문화에 대한 정책을 실험한다는 목적을 제시하였다.

- 현재 호베르의 집은 공공시설로 인정받고 있으며 건물 보수공사등과 관련하여 파리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예술 공간은 다양한 연령층 및 출신을 가진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프랑스 문화성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4만 명의 전세계 사람들이 이 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4. 시데프(프랑스지방의원전문교육기관)

- 시데프(CIDEFE : Centre d'Information, de Documentation, d'Etude et de Formation des Elus)는 의원정보자료연구교육센터, 지방의원교육전문기관승인을 하는 비영리협회다.
- 파리근교 몽트호이(Montreuil)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0개 지부를 두고 있다. 이사회(2012년 10월기준)는 26명(대표 1인, 부대표 3인, 유럽지방의원네트워크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교육프로그램운영은 정기적으로 주간지 레트르뒤시데프, 법률전문지 까이에뒤시데프를 발행하고 을뤼넷(사이트)등을 운영하고 있다.
- 시데프는 프랑스의 진보적 지방의원들의 수십 년간에 걸친 요구와 노력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되었다. 정의와 사회적 진보, 민주주의, 국제적 연대와 평화에 기반한 가치를 강력히 추구하며 지방의원의 업무지원 뿐만 아니라 지방당국의 모든 관계자들(시민활동가, 단체, 노동조합, 연구자, 기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정보를 제공,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여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원들에게 효율적이고 유용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진보적인 지방의원과 활동가들의 공동의 혁신적인 연대의 공간(Common and innovative house of solidarity)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학습과 토론을 조직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다.
- 설립초기부터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며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발전을 이뤄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로 ‘지방의원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법안’ (1992년)을 통과시켜 제도화시켰다. 현재까지 운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약 4만 9,000일과 2,700회에 달한다.

5. 파리시립도서관

- 파리시립도서관은 쇼핑몰처럼 온통 유리벽으로 건축된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로, 2010년 건축되기 전에는 자동차도 수리하는 매우 큰 주차공간이었으나 파리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추진되어 도서관과 바로 옆에 200명 정도의 공동 거주공간이 함께 건축되었고 문화가 담긴 도심 한가운데의 소통을 역할을 하고 있다.

-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는 공간에는 만화와 잡지가 놓여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도서관에 적응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답답함이나 싫증나지 않도록 책꽂이를 낮은 것부터 뒤로 갈수록 높게 구성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200m² 의 1층 안쪽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장 옆에는 6천개 정도의 도서를 전시하였는데, 지금은 미국 사진작가의 전시회 중이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 함께 놓았다.
- 설계할 때부터 층마다 벽면에 책꽂이로 활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본인이 보기에다 장식장처럼 예뻐보인다.
- 파리에 52개의 일반도서관이 있고, 약 10개의 특수, 특성화된 도서관이 있다. 총 장서의 수는 13만개. CD는 2만개, DVD는 1만5천개가 있으며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음악과 영어 관련 잡지가 있고, 전문적인 악보도 있다. 물론 원하는 CD를 가져다 들을 수도 있다.
- 장애인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이는 곳도 있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함께 보고 난 후, 토론회나 간담회를 주민들과 갖고 있다. 사서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주민과 더욱 친밀해지고 반응도 좋고 전문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함으로서 수준 또한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 파리시립도서관의 전문화된 분야는 구직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업율의 증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서관이 나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단계별로 되어 있어 어느 직업을 원하는지, 직업소개, 이력서 작성 방법, 어디서 어떤 시험문제들이 나오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간을 들고 바꾸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사서가 상담과 조언을 하고 있다

6. 르 블랑 아 카페

- 프랑스 파리는 카페의 천국이라 할만큼 도시 곳곳에 카페가 많다. 그리고 카페 테이블마다 파리시민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카페문화는 프랑스의 오랜 역사임을 힐끗 본 파리시 풍경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 르물랑 아 카페(Le Moulin a Cafe)는 파리 14구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 주민들간의 소통과 나눔,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파리 14구는 파리지 다른 구에 비해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생활수준이 높지 않은 오래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재건축을 위해 건물들이 철거 위기에 처했는데 그곳에 오래 살던 주민들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하나로 모여 ‘민주주의연맹’이라 불리는 협회(우리의 시민단체)를 만들고 무분별하게 재건축하는 것을 막는 일을 시작했다.
- 현재 르 물랑 아 카페가 있는 건물도 위층에 주민을 위한 시설인 기숙사 및 보육원, 체육시설 등이 있던 곳이었는데 철거가 되려하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민주주의연맹이라 하는 협회에 모인 주민들이 8명의 창립멤버와 더불어 1층에 마을카페를 만든 것이다. 카페의 크기는 80제곱미터(약25평)로 그리 크진 않다. 처음에는 바(bar)라고 부르는 서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형태의 카페였다. 그런 바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커피나 초콜렛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주민들끼리 먹는 수준의 음식을 만드는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가 아예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7. 포럼데지마쥬(프랑스 대표적인 영화아카이브)

- 이곳 포럼데지마쥬(Forum des Images)가 있는 Les Halles은 파리의 모든 지하철과 RER이 만나는 파리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범죄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자칫 우범지역화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파리시는 이곳에 모이는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과 가장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포럼데지마쥬를 운영하고 있다.
- 이곳 프랑스 포럼데지마쥬에는 1137년 아주 큰 시장이 있었다. 당시 왕이 파리의 이곳저곳 퍼져있는 벼룩시장, 도매시장들을 이곳으로 모아 레알이 되었다. (레알이라 하면 시장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 1969년에 더 이상 시장을 넓힐 수가 없어 파리지 외각으로 레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형지스라 하는 도시에 아주 큰 부지를 매입해서 레알을 옮기고 시장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지하는 주차장 상업시설을 갖추고, 위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와 관련된 영화가 많이 만들어 졌고, 파리의 역사, 문화 등 파리의 변천사를 담은 것을 모아 이곳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포럼데지마쥬의 존재 이유이다. 이곳은 영화, 다큐, 모든 시대 및 미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문화 감상, 일반적인 영화, 아이들, 어른, 모든 나이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고 과거영화, 제3세계의 영화 다른 곳에서 상여되지 않은 영화를 이 공간에서는 유료로 볼 수 있다.

8. 알떼흐문디(공정무역 매장)

- 알떼흐문디(Altermundi) 공정무역매장은 파리시내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파리 시내에만 30여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공정무역제품은 물론 일반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 프랑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사를 10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이 중심에 사회적기업 SOS Group이 있으며 지자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기업으로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경제활동도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라고 표현했다.
-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을 하는 무역협력이며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세계의 소외된 지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매장의 상호인 ‘알떼흐문디’는 라틴어로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한다. SOS Group에서 하는 일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이 제대로 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로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9. 흐뒤(벨기에 책마을)

- 1961년 리처드 부스라는 서적 판매상이 영국 헤이온와이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책마을 건립운동이 일어났다. 이어서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까지 책마을은 설립 확대 되었으며 리처드부스를 중심으로 세계책마을협회 IOB(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Booktowns)를 조직하여 현재 13개국 16곳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주출판도시(헤이리 책마을) 또한 이곳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헤이온와이의 이름을 본따 만든 것이라 한다.
- 흐뒤(Red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약 1백킬로미터쯤 룩셈부르크 방향으로 내려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천명인 리방(Libin)에 속해있는 작은마을로 400여명

의 주민이 있다. 흐뒤 책마을은 헤이온와이를 벤치마킹한 벨기에의 책마을로 1984년 기자 출신 노엘 잉슬로가 창고를 개조하여 도서관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헤이온와이와 자매결연을 맺고 유럽 제2의 책마을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고서적상들이 모여들어 현재 17개의 서점이 들어서 있다. 비록 수려한 역사 잔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려한 강이 풍경을 이루고 있는 곳도 아니지만 해발 450m의 고원지대에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로 연간 전세계의 20만 명의 방문객이 흐뒤를 찾는다고 한다.

- 한때는 26개의 서점들이 있었지만 인터넷 발달 및 경제위기로 인해 서점들이 폐업이 이어져 현재는 17개의 서점이 맥을 이으며 대부분 다른 job들을 병행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10. 시헤스코(SIRESCO)

- 시헤스코(SIRESCO)는 16개의 파리 근교 우리의 구청과 읍,면,동의 중간 정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꼬뮌이 참여하여 만든 공공급식협동조합이다. 꼬뮌간 공공급식조합의 유래는 20세기부터 프랑스의 학교의 발달과 함께 공공급식제도가 생겨났으며 이는 유럽의 많은 사회제도의 탄생이 그러하듯이 대부분은 파리 근교 도시들 중 공장지대나 산업 지대등 도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민중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욕구에 의해 탄생되었다.
- 1993년 꼬뮌간 공공급식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급식의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급식이 사유화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방의원들이 공공서비스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꼬뮌간 조합으로 결정하였다.
- 시헤스코의 발전에 가장 기여한 사람은 송피니의 의원 알랑 파통이다. 그는 요리사이며 요리전문대학교 선생님이고 프랑스의 해산물등 식재료를 잘 아는 전문가였으며 프랑스 미식가를 위한 책을 만드는 출판인이었다. 의원 개인이 가진 요리사로서의 직업의 전문성과 의원 역량의 바람직한 조화가 시헤스코의 초석을 놓고 발전을 키웠으며 그가 가진 네트워크가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다.
- 시헤스코 시설의 내부는 모든 식재료의 반입에서부터 전처리과정 조리 보관의 전 과정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입구마다 과정별 작업요령, 작업온도, 장비취급요령, 조리시간, 보관 기일등이 상세하게 그림과 함께 표로 표시되어 많은 다국적 노동자등 누구든지 작업요령을 쉽게 숙지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만든 음식은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이나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 저소득층등 사회적 공공급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IV. 연수 다이어리

서정순(서대문구 의원)

1. 바람직한 해외연수의 꿈을 안고 프랑스 연수단을 구성하기까지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결음 모임’(기발한 모임)은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기초의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1년 9월 발족되었다. 그 모임에서도 각 의회 단위로 추진되는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기발한 모임에서 바람직한 해외연수를 함께 추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기발한 모임 워크숍

그러던 중 서울민주아카이브 대표로 활동하며 프랑스에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 같은 지역의 이**씨로부터 프랑스의 시테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의원들도 직접 가서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았다. 국비로 운영된다는 프랑스의 지방의원 전문 연수기관 ‘시테프’에 관한 얘기는 무척 솔깃했고, 지방의원 연수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기관 섭외가 한결 수월하리라는 기대를 했다.

2012년 10월 초순에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에서 뉴욕, 워싱턴 연수를 갔는데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연수였으나 나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연수처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여성의원들끼리 잘 준비해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미국 연수에서 돌아오자마자 기발한 모임에서 프랑스 연수를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많은 의원들이 호응을 했고, 이**씨에게 프랑스 연수 제안서를 의뢰했다. 처음엔 여성의원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2주일 일정의 499만원 건적이 나왔다. 그래서 독일 연수비용을 감안하여 10인 기준 8박 10일 일정으로 400만원에 맞춰주길 요청했다.

그 요구에 맞추어 10월 24일 조정된 연수 기획 초안이 왔는데, 11월 말까지 연수금액의 30%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수기획안이 너무 간략하고 연수 시행기관에 대한 소개가 없어 난감하긴 했지만, 서울민주아카이브 대표로서 프랑스와 여러 차례 교류 경험이 있는 이**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발한 모임 인터넷 카페에 제안서를 올렸다. 그런데

11월 16일 기발한 모임 정기회의가 열릴 때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확정한 사람이 거의 없어 제안자로서 무색한 상황이 되었다. 회의를 통해 함께 가고는 싶지만 각 의회에서 혼자 가는 것에 대해 의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2년 이상의 연수비용을 이미 다 써 버렸거나,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또한 6개월 전 사전 연수 준비 과정을 감안해서 정한 4~5월 연수 일정은 회기와 겹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수 제안자로서 프랑스 연수 계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감이 발동하여 우리 연수단은 숙박과 식사 수준은 크게 개의치 않으니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연수 일정을 2월로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11월 21일이 되어서야 2월에도 연수는 가능하며 10여명 기준 7박 9일 간의 대략적인 일정으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며 350만원의 건적으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프랑스 연수를 책임지는 한국 측 기관이나 여행사도 없을 뿐 아니라 인솔자도 따로 없다는 설정은 당혹스러웠다. ‘전여네’가 추진한 두 차례의 해외연수에서도 실무를 책임지는 인솔자 한 명은 있었는데 연수 제안자가 실무까지 맡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였다.

공교롭게도 모집 초반 연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 10여명 모두가 민주당합당 여성의원들이어서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민여협) 혹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실무지원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 연수 주최 측에 연수단을 15명으로 확대 구성하면 인솔 및 실무 인력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연수단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연수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우리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결국 연수단 추가 모집을 포기하고 기존 인원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프랑스 주최 측에서 차량 관계상 10여 명은 애매하니 연수단을 15명으로 채우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

부랴부랴 연수단 확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을 설득하여 기발한 모임과 전여네가 프랑스 연수를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여네는 기발한 모임보다 활동 역사가 길고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있는데다 사무국장의 실무지원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의원들이 선호했다. 정책 중심의 해외 연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의식과 열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단체 활동가 출신의 여성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프랑스 연수를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수십 통의 전화와 전여네 공식 뉴스레터 발송으로 프랑스 연수단을 추가 모집한 덕분에 12월 말경에야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15명의 인원을 채우게 되었다. 개별적인 해외 연수 경비 지원에 대한 의회사무국 혹은 의장의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이 늦어진 사람들은 순위에서 밀려 못 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처음엔 인원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프랑스 측에서 연수 차량이 9인승인데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는 연수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16명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수단이 25인승 한 대로 움직이면 되지 왜 9인승이냐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프랑스 현지 사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애초 프랑스 연수단 동행 실무 지원은 전여네 사무국장이 하기로 하고 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논의 끝에 전여네 1기 사무총장과 2기 공동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는 오산시 김미정 의원이 연수 경비 중 50%를 공통경비만 내고 실무를 맡기로 했다. 프랑스 연수 실무책임자가 확정된 후에야 사전 연수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3차에 걸쳐 프랑스의 지방자치, 여성의 정치참여, 협동조합, 책마을 등에 대한 사전 세미나를 하면서 실무를 논의하기로 했다.

2. 숙박과 식사 문제로 불안했던 프랑스 연수

프랑스 국제교류 비영리단체라는 또*****는 연수 기관 섭외와 항공권 예약을 위해 11월 말까지 계약금 납입을 요구했고, 선입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1월 초순까지 연수단 대부분이 의회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연수비 전액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1월 10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렸던 프랑스 사전 연수 첫날, 연수 경비 세부 내역서를 보게 되었다.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7일 동안의 1인당 식비가 20만원이며 식사를 의원들이 직접 조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직접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 금액 변동이 있다는 것도 함께 공지되었다. 게다가 7박에 대한 숙박비도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보고 걱정이 앞섰다.

프랑스, 벨기에 연수 1인당 경비 상세내역(7박 9일)

(단위 : 만원)

항목	1인당 금액	비고
항공권	1,400,000	
운전(2인)·통역(1인)·인솔(1인)	800,000	운전자 중 1인이 인솔 겸임
이동(자동차2대, 유류·통행세)	600,000	9인승 2대
숙박	200,000	캠핑장 모빌홈
식사	200,000	연수의원들 직접 조리
기획·답사·섭외·준비	200,000	
기타(입장·자료·통신·선물)	100,000	
합계	3,500,000	

2011년 전여네 독일 연수는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인솔자가 있었고 8박 10일의 일정 1인당 총 360만원으로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한 끼 식비 평균 2만 3천원, 1박 평균 7만원이었다. 같은 유럽권의 독일 연수와 비교하니 연수단 의원들의 반응이 예상되어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전 연수를 위해 서대문구의회에 일찍 도착한 몇몇 의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밥 해먹으며 연수를 할 수는 없다고 펄쩍 뛰었다.

마침 사전 연수에 참석하기로 했던 알선자 이**씨가 의회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연수 경비 세부 내역과 독일 연수 결산내역을 함께 보여주며 연수 제안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프랑스 식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맞지 않아 직접 조리해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며, 숙소도 지낼만하다고 했다. 의원들이 식사 준비를 하더라도 기본식은 제공해줄 것과 비영리단체로서 식비 및 숙박비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수 경비도 절약할 겸 연수 내용의 일부로 프랑스의 대중교통을 경험할 겸 연수 전용 차량을 최소한으로만 이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첫 사전연수에서 서울시립대 김민정 교수로부터 ‘프랑스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강의 후 연수 준비를 위한 회의를 통해 실무 역할을 맡은 김미정 의원이 단장을 겸하게 되었고, 동등감시소는 연수단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꼽혔다. 이**씨가 또***의 기관섭외력과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누차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와 숙박 문제가 내내 마음에 걸렸고, 연수 제안자로서 책임이 너무나 무거웠다. 사전 연수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측은 우리 연수단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어느 연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저 수준의 경비로 의원 연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 강경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씨를 한국 측 연수 책임자로 생각하고 프랑스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지만, 이**씨는 알선자일 뿐 또**** 측의 연수 경비 내역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연수 제안자 입장의 나는 이도저도 못한 채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밤잠을 자지 못했고, 위염까지 생길 정도였다.

다행히도 프랑스 측으로부터, 기본식은 제공받기로 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에 연수단 의원들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우리 연수단이 유일하게 추가로 요청했던 동등감시소 섭외도 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해외연수의 기본적인 사항인 여행자 보험 가입이 빠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 김 단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수비용이나 일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연수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세세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측은 적은 비용에 시간도 촉박한데 우리 연수단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1월 19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제 2차 협동조합 프랑스 사전 연수 및 회의를 한 후 2월 4~5일엔 1박 2일 동안 서천에서 제 3차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씨로부터 프랑스 연수 경험에 있는 대안경제센터 지** 대표를 소개받아 프랑스 연수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모빌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의원들은 숙소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지 대표 역시 숙소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며 파리 최고의 4성급 캠핑장으로 일종의 펜션 같은 곳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숙소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되었다.

프랑스 연수 일정이 임박해오자 그 공백을 채우고자 처리해야 할 일들은 더욱 많아졌다. 프

랑스 연수단 카톡 채팅방에서는 누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짐을 필수로 챙겨야 할 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준비성이 강한 몇몇 의원들은 우리가 묵을 숙소에서 기본 세면도구나 타월, 드라이기 등이 있는지 궁금해 했고, 숙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했다. 급기야 부단장을 맡은 조영옥 의원이 숙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랑스의 또**** 측과 20분 동안이나 국제 통화를 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본 한 의원은 우리가 묵게 될 모텔은 컨테이너 수준이라고 해서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프랑스와 교류경험이 있는 지**의 안내

▶전여네 정기세미나(3차 사전연수)

3. 해외연수 최악의 숙소, 모텔홈

2월 19일 오전 8시가 되자 연수단 의원들이 인천 공항에 속속 도착하였다. 의회 사무국 직원과 동료의원, 가족 등이 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을 배웅하러 나왔다. 기발한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대문구 의회 의장도 연수단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해주었다. 연수 과정에 쓸 많은 양의 선물과 옷 등으로 모든 의원이 부칠 짐의 1인당 23kg 무게 한도를 모두 채우고도 또 다른 휴대 가방이나 배낭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수 복장이 방문할 기관에 따라 최고의 정장, 일반 정장, 세미 정장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았고 프랑스 날씨도 매우 춥다고 하니 챙겨갈 옷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여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희 의원은 연수에 뒤늦게 합류한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엄청난 양의 김치 등 많은 부식까지 준비해와 공통경비 100달러를 지급하여 짐 하나를 별도로 부쳐야만 했다.

우리가 탄 에어프랑스는 예정된 시간에 인천을 출발하여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였다.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전날 밤도 거의 자지 못한 채 12시간의 비행으로 몹시 피곤했지만, 현지 시간 오후 2시 25분 파리의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하고 화창해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9인승 승합차 두 대를 나눠 타고 파리 동부 캠핑장을 향해 출발했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 오후 4시 경에 도착하였다. 캠핑장 입구에 있는 관리 사무소를 지나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본 집들은 듣던 대로 정말 컨테이너 박스 같았다. 게다가 차량 이동 과정에서 인술을 겸한다는 두 운전자 모두 파리에 온 지 3~4개월 밖에 안 되고 불어를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전해져 모두들 어안이 병병했다



동부캠핑장 숙소



모빌홈 안 침실(2인 1실)

자갈 마당을 지나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끌고 숙소로 도착한 순간, 연수단 구성원 모두는 그 작은 규모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인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았고 짐을 풀 공간이 없었다. 거실과 부엌, 방이 2개인데 4인이 쓰기에는 숙소가 너무 좁았고, 게다가 한 방은 가운데가 꺼진 작은 더블 침대에서 두 명이 함께 자야하는 상황 이어서 원성이 더욱 높아졌다. 연수 제안자로서 책임이 있는 나는 그 상황을 스스로도 수습 할 수가 없어 감기를 핑계로 이불 속에 처박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현장 책임자라는 이 단장이 숙소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떴으나 감감 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못한 연수단 임원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같은 캠핑장에 기존 숙소(1박 69유로)에서 1인당 총 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더 나은 숙소(1박 94유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뀐 숙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자부담을 해서라도 숙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일정에는 숙소로 도착해서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5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파리 현지 투어를 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숙소문제를 알아보러 간 현지 연수 책임자가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연수단은 의원들은 밖에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한 의원은 연수단이 모일 수 있는 회의 공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화가 난다며 파리 주최 측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숙소를 옮길 것에 대비해 가방을 모두 다시 밖으로 내어 놓았으나 당일 숙소를 옮기려면 숙박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숙소로 짐을 옮겼다. 5시 예정되었던 저녁식사는 8시에 숙소로 배달되었다. 8시 30분에 파리 야경투어를 떠나기로 하고 몇몇은 의자에 앉고 몇몇은 선 채 서둘러서 밥을 먹었다. 밥은 설 익었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싱거웠지만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가져온 반찬을 꺼내 묵묵히 밥을 먹었다. 몇몇 의원들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

8시 30분 출발시간에 맞춰 이동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단장이 와서 밤이 너무 늦어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야경투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날씨 좋은 파리에서 금쪽같은 4시간을 아까워하던 많은 의원들이 기분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과 30분 만에 일정을 취소한다니 모두들 어이가 없었다. 한 의원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일정대로 30분만이라도 야경투어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단장이 “사고라

도 나면 의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이 말 끝에 그 의원 입에서 욕설이 나왔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우리 쪽 연수단장을 통해 욕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연수단에서 그 의원을 빼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의원으로서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한 편에서는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상대 쪽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가 나서서 그 의원에게 다른 걸 다 떠나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으나, 그 의원은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며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연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니 판을 깨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공무원 연수인 만큼 선불리 돌아갈 수 없고 연수 내용 자체는 믿어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져 숙소는 몹시 추웠고, 두꺼운 옷을 꺼입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큰 사건을 겪은 충격과 시차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4. 내용이 알찬 프랑스 연수

2일차(2. 20. 수) 바뇨 시청, 상원의회

실질적으로 연수가 시작되는 두 번째 날,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은 7시 30분에 김치, 계란 장조림, 미역국이 배달되었다. 숙소가 좁아 의원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숙소 밖에서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8시 출발 시간에 맞춰 식사 후 숙소를 옮기기 위해 서둘렀는데 이동 차량 중 한 대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 또 50분을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도 10시 10분 전에 ‘호텔 드 빌’이라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공공기관 같기는 한데 시청이 맞나 하는 의구심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 보았다. 우리나라 주민센터 규모보다는 큰데, 1층 계단 입구에 각종 사업 안내 포스터 등이 붙어 있었고 민원창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이 옛되어 보이는 통역 담당이 도착했고, 바뇨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시청을 호텔이나 메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바뇨시청 간판



바뇨시청 전경

바뇨시 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곳을 견학하기로 했다. 바뇨 시장(마리 엘렌)과 함께 문화센터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무척 한산해보였다. 문화센터는 넓은 공원을 끼고 있었는데 건물이 참 아름다웠다. 지하 1층 로비에는 각종 빵과 커피, 차,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 간식을 즐기고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전 간담회가 끝난 후 의원들 모두가 소르본 대학 2학년이라는 통역자 정**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연수 기관에 대한 섭외도 정**씨가 다 했다고 한다. 오전 일정을 통해 전날 밤 연수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우려는 완전히 불식되었다. 점심은 시장의 접대로 장애인 부모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에서 거의 2시간 이루어졌는데, 통역자가 식사를 못할 정도로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고 시장은 모든 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해주었다.



바뇨시 문화센터 바깥 전경



바뇨시장(가운데)과 점심식사

오후 5시 상원의원 간담회 및 상원의회(세나) 견학이 있기 전까지는 2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어 팡테옹, 소르본 대학 등을 대충 둘러보고 세나에 붙어 있는 룩셈부르크 공원을 산책했다.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진 후 세나에 들어가기 전 공원 어딘가로 만남의 장소가 정해졌다. 정해진 장소를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겼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 만남의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안내 표지판을 보아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여기저기 서둘러 다녀본 끝에 야외 의자에 앉아 노인들이 체스를 두고 있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지 연수단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날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앞으로 연수를 잘 진행하자는 취지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의원들은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약속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의원들 나름대로 최고의 정장을 갖추어 입고 다소 긴장한 채 간단한 검색 절차를 거쳐 상원의회 안으로 들어갔다. 미셸 앙드레 상원의원과의 간담회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끈질기고 열정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원 의원의 간단한 발표를 듣고 많은 의원들이 고무되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으나 회의 중인 상황이라 간담회가 1시간으로 짧아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간담회 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다는 세나를 구석구석 돌며 그 곳 견학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세나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었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나(상원의회) 바깥 전경



세나 실내 모습

상원의회 견학을 마치고 자유 시간 일정이 있었는데 수요일엔 루브르 박물관이 야간 운영을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연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부터 평생 한 번일지도 모르는 프랑스 여행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야한다/다녀온 적이 있다/연수인 만큼 안가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개별 여행을 통해 가야한다 등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저녁도 굶어야 하는 상황이고 입장료도 자부담인 만큼 각 의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데다 시차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된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몇몇 의원들은 숙소로 먼저 돌아왔다. 캠핑장의 숙소는 캄캄하고 냉기가 가득해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오들오들 떨어야 했다. 8시가 다 된 그 상황에서 밥을 하는 대신 집에서 챙겨온 누룽지를 끓여 저녁을 해결하였다.

이틀간의 경험을 통해 3일째부터 의원들이 직접 조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주어진 메뉴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받으면 숙소별로 4인 1조가 되어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한 후 큰 전기밥솥을 비롯한 조리도구와 남은 식재료를 다른 숙소로 전달했다. 연수 기간 중반까지는 현지시간 새벽 3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상황이라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숙소별로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반찬에다 다들 요리 솜씨가 뛰어나 식탁이 풍성했고, 모든 테이블과 의자를 다 동원해도 일부는 여전히 서서 밥을 먹어야 했지만 식사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식사를 직접 준비한 매 끼마다 16인분의 설거지 양은 엄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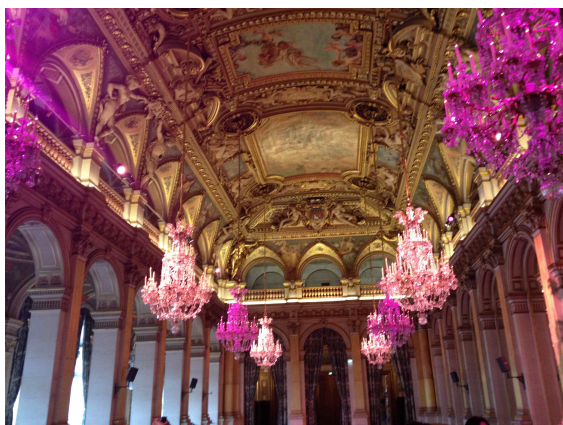
모빌홈 식사 메뉴



서서 식사하는 여성의원들

3일차(2. 21. 목) 에스파스, 파리시청, 동등감시소, 호베르의 집

환경을 살리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스파스에서의 간담회도 참 좋았다. 허름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시민운동단체(프랑스에서는 협회라 부름)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박원순 시장도 다녀간 곳이라 하니 서울시에서도 에스파스를 벤치마킹하여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간담회를 마친 후 버려진 철길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에스파스의 사업 현장을 직접 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의원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시종일관 진지하게 담당자의 설명을 경청하며 녹취를 하고 사진을 찍고 많은 질문을 했다.



파리 시청 로비



차안에서 먹다 남긴 점심 도시락

에스파스 일정은 12시 3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동 차량이 30분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졌고 교통 정체로 2시 10분 전에 파리시청에 도착했다. 차량 이동 중 시의원과 의 간담회는 의원 개인의 급한 일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점심식사를 위해 파리 시청 견학시간을 늦출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참고 담당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역시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박물관 같은 파리시청을 견학하였다. 3시 20분이 되어서야 이동 차량 안에서 야채계란볶음밥 도시락 점심을 먹었다. 차가운 도시락에 따뜻한 물 한잔 없는 상황이라 또다시 원성이 일었고, 몇몇 의원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체할 수 있다며 식사를 하지 않았다.



에스파스가 조성한 철길 공원



에스파스 디렉터와 함께

4시 일정의 동등감시소는 파리 시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동등감시소는 여성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연수 일정에 포함되었지만 간담회 시간은 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다행히도 다음 일정은 공식 간담회 일정이 아니어서 간담회 시간을 연장해 동등감시소에서 더 많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느꼈다. 동등감시소를 나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되는 파리 시청 앞 광장을 둘러본 후 걸어서 예술가들이 만든 호베흐의 집을 방문하였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던 곳인데다 공식 방문이 아님에도 1시간 30분이나 배정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다. 그곳에 입주해 있는 예술가로서 현관을 지키고 있는 당번 담당자로부터 그곳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공간이 만들어진 배경과 운영방식, 예술적인 공간 구성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다. 예술적 감각을 총 동원해 꾸며진 각 층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놀았다.



동등감시소 안 여성정치력 지도



호베흐의 집 안내 담당

가장 낮은 온도로 난방을 하고 외출한 덕분에 숙소는 어느 정도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저녁만찬을 한 후 중간평가 겸 연수 출판준비 회의가 이루어졌다. 팔리는 책을 만들자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파주시 임현주 의원이 출판 단장을 맡기로 하고, 출판위원회(홍춘희, 홍인화, 조영옥, 민경자 의원)가 구성되었고 자문 위원(하선영, 김영미 의원)도 정해졌다. 각 의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원고 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시테프에서 있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한프 여성정책 포럼에서 발표할 홍인화 의원의 원고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차(2. 22. 금) 시테프, 시립도서관, 보나빠띠

또****에서 보내준 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비로 운영되는 지방의원 교육기관이라고 알고 갔던 시테프는 그게 아니었다. 국외공무연수 진행 절차상 시테프의 초청장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시테프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들 의아해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테프는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연수기관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기관이었다. 3. 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프로그램으로 한프 여성정책 국제포럼을 마친 후 시테프를 견학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날 점심은 시테프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와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자는데 또**** 측의 제안이 있었으나 우리 연수단의 요구에 의해 예정된 메뉴대로 차량 이동 중에 유부초밥 도시락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몇몇 의원들이 숙소에서 준비해온 보온병 커피로 찬 속을 달래야 했다.



시데프에서의 한프 여성정책 포럼



그림책을 이용한 성평등 교육 소개

점심 식사 후 파리 시내 오페라 역 근처에서 30분 정도의 자유 시간을 가진 후 파리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시내에서 비교적 변화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공채로 선발되었다는 도서관장으로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운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구석구석을 견학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나와 차량으로 약 2시간을 달려 저녁 7시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인 보나빠띠에 도착하였다. 조그만 생협 매장 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급식조리시설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그 매장에서 의원들이 각종 물품을 구입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그 매장 직원이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간단한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주입식 산수의 우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파리 시립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사서(가운데)



보나빠띠 로컬푸드 매장 직원(왼쪽)

간단한 도시락 점심 식사 후 도서관에서는 물 한잔도 못 얻어먹었기 때문에 모두들 배가 고픈 상태였다. 하지만 40대 정도로 보이는 보나빠띠 대표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의 배경과 역사에 어찌나 열정적으로 설명하는지 아무도 배고픈 내색을 하지 못했다. 함께 일하는 직원과 급식 시설을 둘러보며 각각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드디어 고대하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테이블에 모두 펼쳐놓고 하나씩 맛을 보았다. 첫날 바요시장이 사준 점심은 지나치게 짰는데 이번 저녁 도시락은 건강을 위한다며 소금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주 작게 포장되어 있는

소금을 다 쳤는데도 간을 맞출 수 없어 많이들 남겼다.



보나빠띠 급식 도시락 식사

5일차(2. 23. 토) 공정카페, 포럼데지마쥬, 알페흐

연수는 주말에도 이어졌다. 공정카페 방문은 11시로 예정되어 있어 토요일 아침 시간의 여유를 한껏 즐긴 후 10시에 출발하였다. 가다보니 어떤 공공기관 옆 길거리에 비교적 큰 장이 열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어떤 장인지 궁금해 하자 이** 단장이 차를 세워 장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차량과 좌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중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 몇몇 의원들은 흥정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했다. 겨우 차량 한 대가 지날만한 좁은 골목을 한참 지나 르물랑아 카페에 도착했다. 프 주최 측에서 9인승 차량을 고집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들이 모여 바느질 공부를 하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장소를 카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사무실로 옮겨 1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대표, 부대표가 6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퇴직 후 무보수로 카페를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척 좋아 보였다. 친환경 식재료를 주로 사용한다는 공정카페 식사도 우려했던 대로 야채스프부터 매우 짰다. 건강을 위해 비교적 싱겁게 요리했다는데도 우리에게 지나치게 짜서 프랑스 사람들의 염분 과다 섭취가 걱정될 정도였다. 레스토랑이라 프랑스식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남기는 게 예의가 아님에도 짠 음식들은 남길 수밖에 없어 다소 미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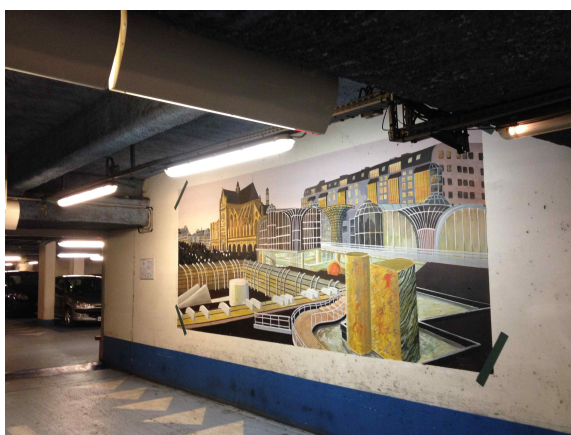


▶ 공정카페 대표와의 간담회

▲ 공정카페 점심메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파리 중심가에 있는 포럼데지마쥬에 갔다. 파리와 영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는 하나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었고 설명 듣는 의자가 아주 편안해 뒷자리에 앉아 실컷 졸았다. 식후인데다 피로에 지쳤는지 뒷자리에 앉은 깊은 잠에 빠져든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모 의원은 설명이 끝나자 “여기 왜 왔는데?”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마지막 일정은 박원순 시장도 다녀갔다는 알페흐라는 공정무역 매장 방문이었다. 그곳의 운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곳에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구입했다. 공정무역매장답게 가격이 꽤 비싸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지갑을 여는 의원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가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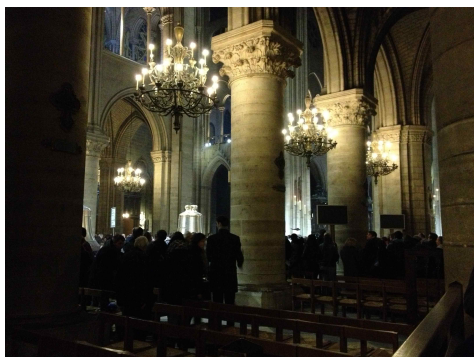


포럼데지마쥬 주차장 벽화



알페흐문디 공정무역매장에서

쇼핑을 하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후 저녁식사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현지식을 경험해보기로 했다. 2호차 운전을 맡은 성 팀장은 한국사람 옆에 아홉은 프랑스 정식 코스요리가 입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까운 돈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프랑스에 왔으니 달팽이 요리 맛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다행히 유학생으로 와서 파리에 오래 살고 있다는 김종희 의원의 조카가 우리들의 자유 시간에 맞춰 나와주었다. 거대한 인파와 함께 노트르담 성당 미사 광경을 구경한 후 3개 조로 나뉘어 먹자골목으로 들어갔다. 뭘 먹어야 할지 한참 고민하며 여러 식당을 기웃거리다 비교적 값이 싸고 비교적 한산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조카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는데 대체로 대만족이었다. 포도주까지 곁들여 말로만 듣던 달팽이 요리도 먹어보고 자유 시간을 저녁식사로 다 채웠다. 두 조는 가이드도 없이 흩어졌지만 약속된 시간에 차량으로 모이자 의원들은 각자 비슷하게 선택한 저녁 식사 자량에 여념이 없었다.



▶ 노트르담 성당 내부 모습



▶ 프랑스 요리

6일차(2. 24. 일) 벨기에 책마을

6일차 일요일엔 벨기에 책마을인 흐뒤로의 일정이었는데 아침부터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미끄러운 눈길과 휴게소에 들릴 것을 감안 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른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다. 왕복 6시간의 긴 여정을 대비해 조영옥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한국에서 준비해온 재료로 김밥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계속해서 눈이 내려 차량이동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벨기에로 접어들자 뻘뻘한 침엽수림 설경이 정말 아름다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눈길이라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후 이 단장은 도시락을 먹을 장소를 찾느라 분주했다. 우리들은 책마을을 둘러보며 점심 장소 확정을 기다리다 결국 차안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와서까지 차안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하느냐는 탄식들이 흘러나왔다. 김미정 단장이 관광안내소를 둘러보다가 3층에서 전망 좋은 간담회 장소를 발견해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곧바로 민경자 의원이 그곳 담당자를 찾아 그곳을 점심식사 장소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곳은 간담회 장소이기도 해서 편안 마음으로 참치덮밥 도시락과 우리 연수단이 준비한 어묵국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7일차(2. 25. 월) 시헤스코, 오베르쉬흐와즈



눈으로 덮인 동부캠핑장



흐뒤 책마을의 인쇄소 박물관

연수 마지막 날인 7일차에는 날씨가 풀려서인지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9시에 숙소를 출발해 프랑스 최대 유럽 제일의 모범적인 공공급식협동조합이라는 시헤스코를 방문했다. 통역을 맡은 정 팀장이 전에 없던 지각을 해 30분 늦게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뻘뻘한 일정으로 과로해서인지 정 팀장의 안색이 좋지 않았고 목소리도 힘이 없어 안타까웠다.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급식 재료 보관 장소와 조리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그곳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건강보다 맛을 더 중시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실제 공공급식용 점심을 먹어보니 모든 의원들이 만족할 만큼 정말 맛있었다. 일단 짜지 않아 좋았고,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다양한 종류의 빵은 그 어디서 먹은 것보다 맛이 좋았다. 프랑스 당국은 한 번 나오면 6시간씩 소요될 정도로 위생 검열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시헤스코 자체가 20년간 엄격한 기준에 의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끊임없이 질의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그곳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고 건강은 기본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맛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공공급식시설 시헤스코 현장 책임자(남자)



시헤스코에서의 점심 간담회

1시간 30분 가량의 점심 간담회를 마치고 고흐가 마지막 생애를 살았다는 호베흐쉬흐와즈시를 향해 출발했다. 오베흐쉬흐와즈 시청에서 시장 및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수 7,0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에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다. 예전의 마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온 정책 외에도 생활 체육,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 답변이 오갔다. 간담회가 길어지는 통에 고흐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의원들 대부분이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서 현장을 보고 싶어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고흐 그림 속에 있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 유적지를 찾아 삼삼오오 흩어지는 바람에 길을 헤매기도 하면서 우리 일행은 고흐 무덤엔 가보지 못했다. 출발 예정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단장의 배려로 차를 타고 고흐 무덤에 다녀오는 영광을 누렸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대형마트에 가고 싶다는 연수단의 요청에 따라 약 30분이 주어졌다. 포도주, 치즈 등 잔돈까지 다 털어 몇 가지 품목을 사는데도 고르기가 힘들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흐의 무덤



최후의 만찬(평가회의)

5. 간간한 여성위원들의 평가 회의

8시 늦은 저녁 식사 후 마지막 평가회의를 위해 의원들이 모두 모이고 이 단장, 성 팀장까지 들어와 평가가 시작된 것은 10시 40분이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 마트에서 산 맥주를 모두 꺼내 마시면서 때론 화기애애하게 때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많은 대화가 오고갔다. 숙소, 식사, 차량, 인솔자, 경비 문제 등 그 동안 의원들 사이에 오고간 문제의식들이 다시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 자리를 통해 애초 차량은 3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다른 팀 일정이 생겨 2대로만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 숙소는 블로뉴 캠핑장에 가예약을 해놨는데 그 쪽에서 누락시켜 불가피하게 3성급 반 정도 되는 동부 캠핑장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 동부 캠핑장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연수단 오리엔테이션 및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공사 중인 관계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단장으로부터 처음 듣게 되었다.

의원들은 그런 중요 사항은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지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전했고, 그렇다면 프랑스 주최 측 책임도 있으니 숙소 이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항공권에서만도 1인당 125만원으로 예산 대비 약 15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1인당 10만원 책정된 입장료와 선물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1인당 5만원의 숙소 추가 부담을 나눌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우리 연수단의 평가 내용은 자체 논의를 충분히 거쳐 다음 연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숙박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연수단 일동은 의회에 연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을 출판할 계획도 있어 연수 경비 결산을 요구하였고 이 단장은 조만간 결산 내역을 보내주겠노라고 흔쾌히 답변하였다.

의원들 사이에 앞에서 언급된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연수 자체의 질은 참 높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모 의원은 연수 내용이 자신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차량 이동 중 프랑스를 잘 아는 인솔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모 의원은 연수단장과 실무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미정 의원은 단장으로서 연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것은 실무에 약한 연수단 의원들 공동의 책임이라고 했다. 전여네를 믿고 함께 가는 사람이 좋아 무조건 프랑스 연수를 따라왔다는 의원들도 많았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한 평가 회의는 자정 12시가 넘도록 이어졌고, 도착 첫날 욕설을 내뱉은 의원과 이 단장은 러브샷까지 할 정도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은 새벽 4시까지 남아 프랑스 와인과 치즈를 즐기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랑스 연수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프랑스 연수에서 돌아와 시차 적응을 못해 잠을 제대로 못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각종 회의, 행사에 참여하느라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다. 연수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 결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미정 단장의 메일 검토를 요하는 문자가 왔다. 평가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지는 메일 내용이 심상치 않아 왜 그런지 물었더니 또****측에서 결산내역도 보내오지 않고 숙소 추가 경비를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얼마 안 있어 그 메일에 대한 답

장이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의원들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그 메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전여네 대표단 회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연수단이 숙박비 추가금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론지었다.

적은 비용을 내고 연수의 내용이 질로 담보되었으면 됐지 숙박, 식사, 인솔 등의 부차적인 문제를 왜 따지느냐, 프랑스를 다녀간 많은 다른 연수단들은 숙소나 숙박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가 10년의 역사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 등을 감안할 때 인건비는 비싼 게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에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했다. 나중에서야 기발한 모임 회원이기도 한 ****당의 모 의원이 1년 전에 이**를 통해 프랑스 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발한 모임 정기 회의에서 만나 프랑스 연수가 어땠냐고 그 의원에게 물었더니 무척 힘들었고, 우리 연수가 걱정되었다고 했다. 그랬으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느냐고 재차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년 전 독일 연수는 한국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번 프랑스 연수는 프랑스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추진되었다. 2년 사이에 물가 인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1유로가 그 당시 약 1600원에서 145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로 봐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 연수 경비가 350만원 중 프랑스에 온 지 3~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두 사람이 포함된 인건비는 1인당 하루 50만원이 넘고 청소년 자녀도 재우고 싶지 않은 캠핑장의 모빌홈 숙박비로 1박당 3만원을 책정한 것은 타당한지의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6. 아쉬움과 충만함이 교차하는 프랑스 연수 다이어리를 마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프랑스 연수의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 다른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연수를 추진할 때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처음 연수를 제안했던 내가 이 꼭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프랑스 연수는 우여곡절과 상처가 많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료를 찾고 기억을 더듬는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웠다. 프랑스 연수에 대한 평가회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를 정리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프랑스 연수 주최 측인 또****의 기관 섭외 역량이 뛰어났다. 또****가 구축해온 네트워크 역량으로 프랑스의 우수 기관을 방문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훌륭한 여성 정치인들을 만나 내실 있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 통역자의 불어 및 우리말 실력이 출중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및 각 기관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인 자세로 임해주었다. 셋째 기관 방문에서 대부분 연수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 상세한 기관 소개를 직접 해주었고 각종 질의에 대해 매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었다. 넷째 프랑스 연수에 참여한 여성의원들의 기본 역량이 뛰어나 간담회 때마다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프랑스 연수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의원들의 실무역량 부족으로 해외연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프랑스 연수 주최 측이 비영리 단체라는 것에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사전에

연수 경비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연수를 추진해 인솔, 식사, 숙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둘째 국내에 연수를 책임지는 기관이 없고 연수 주최 측이 프랑스에 있어 이메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싹트다. 뿐만 아니라 알선자인 이**씨의 역할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고, 알선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셋째 프랑스 연수 준비 기간이 짧고, 또*** 측의 일방적인 연수 일정으로 프랑스 연수를 통해 알고 싶어 했던 의원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넷째 프랑스의 생활,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전문 가이드가 없어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여성의원들의 수다로 채웠다. 다섯째 연수 단장이 실무를 겸함으로써 완벽한 실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이 따랐고, 한국 측 연수 책임자가 없던 탓에 프랑스 주최 측과 실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증폭시켰다.

횃수를 거듭해도 의원들 스스로 바람직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번 프랑스 연수를 통해 여실히 느끼게 된다.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지방의원들에게 7박 9일간 동거 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개별 의회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함을 느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프랑스 연수를 제안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15명의 여성의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